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7 제6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778•7427 FAX 02•778•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 1. 15 발행인 : 한홍순

정진석 추기경 평신도사도직 활성화 강조 서울대교구 신년하례 미사에서



〈사진제공 평화신문〉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새해 1월 3일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 성당에서 봉헌된 2007년 서울대교구 신년하례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한국교회가 신자 500만명 돌파하는 양적 성장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의 개신교처럼 정체되지 않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와 공동사목 정착을 역설한 정 추기경은 “가톨릭이 쉬는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성당에 오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양적 성장과 이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추기경은 이어 하느님 체험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 말씀(성경)을 깊이 맛들이는 것과 함께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 ME 등과 같은 평신도 사도직을 좀더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 추기경은 아울러 “친교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대형 본당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는 어

☐ 신는 순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레지오 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레지오 마리아 서울 세나투스

◎ 동정

렵다”면서 친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사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공동사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사목 희망 사제(수품 5~10년)들을 모아 공동사목 취지와 필요성, 방법 등을 함께 연구토록 한 다음 팀을 이뤄 공동사목 본당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에는 염수정 · 김은희 · 조규만 주교

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 이관진 · 류덕희 · 여규태 · 손병두 고문, 회장단과 자문위원, 상임위원, 분과위원장, 가톨릭경제인회 박광순 회장과 서울 세나투스 팽종섭 단장, 연령회연합회 김종호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 한해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다.

정 추기경은 미사 후 성당에서 진행된 신년하

〈한홍순 회장 인사〉

사회 복음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올 한 해도 교우들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은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평협은 지난해에 다양한 계층의 교우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러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평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의회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평신도학교는 1학기과 2학기과로 나뉘어서 실시하고, 여름방학을 이

용해서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선작을 낸 ‘우리 성가’ 가사에 곡을 붙이는 작곡 공모는 올해 4월에 마감하게 되어 있으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려는 이러한 작업은 성가합창제와 더불어 올해에도 계속해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2008년이면 한국평협이 설립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이 땅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마침 지난해에 개편한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서울평협 뿐만 아니라 한국평협 기구로도 포함시켜서 활동을 계속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연구소는 우선 교우들의 신앙생활 실태에 관해서 오랜 준비 조사를 거쳐 올해 실시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평협 40주년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례식에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올 한해도 건강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 23회 가톨릭대상 시상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팀과 평화방송 '성 김대건' 드라마에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지도 민병덕 신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2006년도(제2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열고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



병원 호스피스센터 봉사단(사랑 부문)과 평화방송·평화신문 '특별기획 드

라마-성 김대건 제작팀'(문화 부문)에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수여했다.

1982년 발족한 호스피스센터 봉사단은 25년간 말기암 환자들이 투병기간 중에도 여생을 인간답게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도록 돕는 한편 사별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헌신해왔다. 평화방송TV가 김대건 성인 순교 1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기획 드라마-성 김대건'은 '성인 김대건'을 친근감 있게 되살렸으며, 비신자들에게도 '인간 김대건'의 고뇌와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 존중의 가톨릭 정신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염수정(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주교는 축사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봉사자야말로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를 만큼 임종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드라마 '성 김대건'은 후세에 우리도 이러한 역작을 남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줬다”면서 수상을 축하했다.

한홍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시상식을 계기로 우리 모두 이웃사랑을 통해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가꿔나가는 데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대표 서은경(아가타)씨는 수상 소감에서 “숨어서 하는 봉사여야 하는데 걸로 나서게 된 것 같아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거쳐 간 모든 봉사자들에게 공를 돌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성 김대건'을 연출한 남진우(베르나르도) PD는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드라마



로 만든다는 것은 제작진에게 큰 모험이자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라는 채찍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모든 스텝과 끝까지 힘을 실어준 평화방송 직원들,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사장 염수정 주교와 오지영 사장신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상식에는 이관진·여규태 고문과 회장단을 비롯한 한국평협 관계자들과 평화방송·평화신문 오지영 사장 신부와 수상자 친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단〉

5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봉사단은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여생을 인간답게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도록 돕는 한편 가족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헌신했다. 치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둔 봉사단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돌보면서 사별 후에는 임종자 가족들까지 보살펴왔다.

〈평화방송TV ‘특별기획 드라마-성 김대건’ 제작팀〉

평화방송TV가 김대건 성인 순교 1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기획 드라마-성 김대건’은 열악한 케이블TV 환경에서 최초로 제작된 ‘사극 드라마’로 케이블TV 콘텐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역작이다. 지상파 사극 드라마에 비

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부단한 노력과 출연자들의 신앙적 열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원에 힘입어 높은 완성도를 선보였다. 16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인 김대건’을 친근감 있게 되살렸으며, 비신자들에게도 ‘인간 김대건’의 고뇌와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 존중의 가톨릭 정신을 널리 일깨운 것은 물론 영상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평신도주일 기념 ‘교회와 사회 간 대화’ 사회포럼 열어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39회 평신도주일(2006년 11월 19일)을 기념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과 코스트홀에서 ‘사회포럼 - 교회와 사회 간 대화’를 가졌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교황 요한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43항)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생명수호, 가난, 양극화 등 사회 당면 과제를 교회 평신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지 모색한 자리였다.

한국사회 주요 현안인 생명과 빈곤 문제를 다룬 사회포럼은 지금까지 주로 교회 관계자들만 참석했던 기존 포럼 형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부나 사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본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한홍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회는 교회만이 아닌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

회와의 대화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한국평협이 처음 시도한 사회포럼의 의의를 설명했다.

사회포럼 셋째 날인 11월25일에는 2006년도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전국단위 상임단체장 등 한국평협 상임위원들도 함께 한 가운데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이며 서울대교구 총대리인 염수정 주교가 가톨릭회관 7층 행사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변화를 지향하는 뜻 깊은 사회포럼에 참가하게 돼 기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축복을 전하고,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교회 가르침을 실제로 사회에서 실천하는 이들은 바로 평신도 여러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교회와 사회간 대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또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아닌 어려운 이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사회포럼 날짜별 주제와 주요 내용이다.

〈낙태와 저출산〉

진교훈(토마스)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인력 감소와 노인 부양 부담 및 노후 연금 중대와 같은 경제적 시각에서 저출산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러한 발상은 매



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배금주의와 자기중심주의, 결혼 기피, 지나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낙태 방조 등을 꼽은 진교수는 “아기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가난하게 살고 힘들더라도 아기를 낳고 돌보는 것이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중요성 및 가족제도 보호와 관련한 인성 교육 △낙태금지법 제정 등을 통한 낙태 금지 강화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산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출산 후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부 대표로 나온 신민식(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저출산대책팀) 팀장은 토론에서 “정부는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세대간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만큼 정부의 법적 접근에 앞서 종교계가 낙태 방지와 건강한 가정문화 창달 등에 앞서서 줄 것을 요청했다.

낙태수술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 병원 문을 닫

아야 했던 차희제(토마스) 전 미래축복산부인과 원장은 “낙태를 하지 않으면 병원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쉽게 낙태를 권유할 뿐 아니라 돈도 되지 않고 힘만 드는 분만은 기피하게 된다”면서 “분만 수가를 높여 주는 등 낙태 방지 최일선에 있는 산부인과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인 권영길(가롤로) 의원은 낙태를 막고 분만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가난과 빈부격차〉



류정순(안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평신도 역할’ 발표를 통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단기 실적주의와 정부의 서투른 시장 개입,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고용 불안정 계층의 증가 등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빈곤화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신도 역할로 △ ‘평등과 나눔의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도록 영향력 발휘 △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세금(사회적 저축) 확대 △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확충 운동 등을 제시했다.

이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시 빈민들의 주거실태’ 발표에서 도시 빈민들의 대표적 주거 유형으로 비닐하우스촌과 쪽방, 지하 주거, 영구임대주택을 꼽고, 최저 주거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주거 빈곤의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IMF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빈민들의 빈곤을 개인적 결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희생양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에게 주거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거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처지에 맞는 대안적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에서 김영태(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장은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거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적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염주영(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빈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라면서 “세계화·개방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사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 사례와 앞날’을 발표한 박재천(요한, 사단법인 제정구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복음자리 마을(경기도 시흥시)과 금호·행당·하왕 주민자치공동체(서울 성동구)를 공동체운동의 사례로 들고, “공



동체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협동체를 만들어 자신들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무조건 떼만 쓴다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어떤 토대와 교육이 필요하며, 어떤 제도과 정책이 필요한지를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교회는 지금 가난의 눈으로 거듭나 예수님 권고를 따라 살면서 세상을 치유할 때”라며 “제일 크고 좋은, 최고가 아니라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목을 펼칠 때 모두가 구원받는 ‘생명 살림’ 사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물질 중심이 아닌 ‘가난한 삶’의 양식을 통해 가난 문제뿐 아니라 물질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사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시간에는 김기중(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명례방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인선(빈민사목위원회 현장 선교 활동가)씨, 신덕례(생산협동조합 솔샘 일터) 대표가 공동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 제3회 평화독서감상문대회

한국평협과 평화방송,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회 평화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이 12월 15일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대회 주제 ‘생명사랑·생명존중’에 걸맞게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생명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조출한 잔치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 가장 큰 상인 특별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조우성(서울경인초 5)군은 수상작 낭독

시간에 “「물고기와 함께한 탈출」을 읽으면서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작은 물고기도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발표해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생명문화 가꾸기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학생 부문 특별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이상윤(대구 덕화중 3)군은 “「콜베 신부 이야기」를 읽고 사랑과 순종,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수상작을 낭독해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6회 선교포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지도 민병덕 신부)가 선교 활성화 방안을 나누면서 복음화 2020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한 해 동안 개최한 '선교포럼'이 12월 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6차 포럼과 파견미사로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여섯 번에



걸쳐 열린 선교 포럼은 선교 목표를 세우고 일선에서 실천하

고 있는 본당 선교 관계자들에게 선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선교열기를 북돋는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간 정기적으로 열렸을 뿐 아니라 주제 또한 교구 미래사목 전략, 본당 선교, 북한 선교, 평신도의 선교사명, 소공동체와 선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는 점도 특별하다.

한홍순 회장은 12월 2일 열린 6차 선교포럼 인사말에서 “복음화 사명이 아시아로 옮겨온 제 삼천년기에 예수님 이야기를 알릴 의무는 한국교회에 있다”며 “교회 구성원의 본질적인 삶인 선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선교포럼에 보내준 참가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소공동체와 선교' 주제로 강의한 민병덕 신부(서울 사목국장)는 “선교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나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지 먼저 성찰한 뒤 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과 삶을 보고 다가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병덕(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는 주제 발표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선교교령」 해설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명인 선교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며 선교 사명을 일깨우고, “선교는 단순히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끝없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민 신부는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0년에 반포한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51조를 인용, “기초(소)공동체란 소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와 성경 읽기, 교회 공부와 인간적·문화적 토론 등을 통해 공동 책임을 도출하는 소수 신자들의 집회”라면서 “교회 자체가 친교인 만큼 새로운 기초 공동체들이 교회와 일치해 산다면 더 깊은 친교를 이루는 방법이 되고 교회 생활에 크나큰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소공동체가 지닌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대교구 평협 선교분과(위원장 김길성 가톨릭)는 새해에도 선교포럼을 계속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제2회 가정포럼 “서로 칭찬합시다”

서울대교구 평협은 11월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

리교회관 3층 강당에서 제2회 가정포럼을 열고 가족 간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칭찬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 최옥화(글로리아, MBTI 전문가)씨는 "칭찬은 상대방에게 가장 손쉽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며 "칭찬을 잘하려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 상대의 장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최씨는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처럼 실천하려면 내 몸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칭찬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주로 외모에 대해,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칭찬하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10월27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이어 두번째로 평협 가정분과(위원장 오현희 세실리아)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가정 문제를 드러내고 의논할 곳이 마땅찮은 위기 가정을 향해 교회가 목소리를 내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마련된 자리다.

● 젊은이 포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명동 가톨릭교회관 3층 강당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를 주제로 '젊은이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교회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청년·청소년 분과(위원장 천인옥 이레네오)가 준비한 이날 포럼은 △청년 복음화와 가톨릭 젊은이(조규만 주교) △청년의 본당 활동 실태와 대안(민병덕 신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규만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및 청소년담당 교구장 대리 주교는 '청년 복음화와 가톨릭 젊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먼저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지닌 문제점으로 △개인주의 경향 △부모의 과잉보호 △치열한 경쟁과 세계화 시대 △상실된 전인교육 △이기주의적 인간관계 등을 꼽았다. 조 주교는 이어 청년들이 상당히 두터운 신자층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성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본당에서 제한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보좌신부가 청년사목을 담당하는 데서 볼 수 있듯 청년사목이 중심사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주교는 청년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이야말로 작은 교회요, 학교이며, 성소 못자리이므로 가장 먼저 성가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인교육을 위한 인문학 회복과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며, 가톨릭 교수들을 적극 활용해 젊은이들의 삶과 신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주교는 이와 함께 교회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잘못 가르치거나 교육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장이 되어야 하며, 젊은이들이 모이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본당 활동의 실태와 대안’을 발표한 민병덕(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는 본당 청년 운동을 모든 청년을 초대하는 단계와 정체성 형성 단계, 성숙 단계로 구분하고, 사목적 기준은 △조건에 구애됨 없이 모든 청년들을 초대해야 하며 △정치·경제·문화 또는 오락이 목적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앙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전체 본당 공동체 사목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자신이나 공동체 전체를 위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응답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한 젊은이의 시선을 요약한 내용이다.

2006 청년포럼에 다녀와서

김주혜 그라시아(포콜라레운동)

조규만 주교님과 민병덕 신부님, 그리고 각 본당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한 청년 포럼은 포콜라레 운동에 속한 젊은 세대인 ‘젠’들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첫 프로그램은 주교님의 ‘젊은이와 교회’에 대한 강의였는데 말씀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했다.

젊은이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고민들은 어느 세대나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날을 본다면 젊은이들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의존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고 하셨다.

회사 신입식과 선에 나갔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지만 그렇게 웃고만 있을 사건은 아니었다. 이 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이러한 젊은이들을 낳고 있는 세상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젊은이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교회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젊은이들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있었던 토론시간에도,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교회와의, 사람과의 대화였다.

포럼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점심시간과 젠 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혼자 있는 젊은이들과 그룹을 지어 온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인사했다. 젠들은 그들의 소개와 세상의 시대적 흐름에 맞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살았는지, 안락사에 관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바로 이어진 민병덕 신부님의 ‘청년 본당활동’에 관한 강의는 각 본당에서 온 젊은이들이 안고 온 현재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었다. 본당의 흐름은 어른들을 위주로 흘러가서 젊은이들이 교회의 지원이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포럼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동감을 했으며 이어진 토론 중 ‘청년 본당활동’ 등에 관한 토론 그룹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말하며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토론은 ‘청년들의 정체성과 본당 청년활동’과 ‘청년 복음화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 그리고 ‘생명문화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역할’에 관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시작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젊은이들의 많은 수가 단체장을 맡고 있었고, 단체로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 포콜라레운동의 젠들이 있었다.

‘본당 청년활동’ 그룹에서 한 젊은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말했다.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아야 하지만, 그나마 참여하는 젊은이들에게 개인주의 성향을 많이 보게 되어 어려움을 느낀다. 성가대 연습이 있지만 시험이어서 연습에 참여할 수 없고, 그래서 미사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보고 주변 이들이 미사를 보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잘 보라고 말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한 한 젊은이의 말에 많은 이가 공감했는데, 다른 한 젊은이가 이에 대해 답을 주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라고 했다. 성당에 다니는 것, 청년활동을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좋아서, 활동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고 오직 사랑만 한다면, 교회에서 겪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토론의 해결책도 답은 사랑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린 결론은 사랑이 중요하고 말로써만이 아닌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 “우리 정서에 맞는 성가 함께 만들어요” 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2월 8일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제1회 우리성가 노랫말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성가정’을 지은 이지운(비비안나, 목5동본당)씨가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김지평(사도요한, 흥은동본



당)씨가 우수상 상패와 상금 50만원 △정혜경(체칠리아, 도봉동본당)·윤폴빛(루카, 수원교구 별양동본당)·안병숙(카타리나, 대전교구 둔포본당)씨가 각각 가작 상패와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염수정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는 축사에서 “한국에 가톨릭이 전래된 지 220여년이 흘렀지만 대부분 외국곡에 의존하느라 우리 정서에 맞는 토착화된 성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오늘 수상한 노랫말에 아름다운 곡이 붙여져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평협은 한국평협과 함께 이 노랫말들로 내년 4월말까지 우리성가 작곡을 공모한다. 제1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수상작 5편 가운데 자유롭게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 합창곡으로 작곡하는 것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1편)에는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에는 상금 각 100만원, 그리고 장려상(3편)에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다음은 심재기 심사위원의 심사평 전문이다.

〈심사평〉

평협소식 2006년도 제5호에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성가 노랫말을 공모하기도 하여 지난 10월말에 마감하였습니다. 공모 기간 중 43명의 응모자가 91편의 작품을 보내왔습니다. 이 91편의 작품이 저희들 심사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모두 6명이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이신 신달자 교수님, 작곡가이고 율간이스트이신 강석희 평협 전례분과위원장님, 평화방송·평화신문의 신문국장이신 이윤자 평협 부회장님, 방송작가이신 최홍준 평협 사무총장님, 언론인 문필가이신 조남진 평협 문화분과위원장님, 그리고 평생 우리말을 가르쳐온 전 서울대 교수 심재기 본인이었습니다.

저희 여섯 사람은 11월 10일 최종 심사모임에서 최우수상에 이지윤(비비안나)씨의 '성가정', 우수상에 김지평(요한)씨의 '축복의 미사', 그리고 장려상에 안병숙(카타리나)씨의 '오월에', 정혜경(체칠리아)씨의 '나의사랑 나의기도', 풀빛 윤기영(루카)씨의 '무지개 십자가' 이상 5편을 수상작으로 뽑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20여년을 헤아리는 우리나라 천주교회 역사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지은 노랫말로 성가를 지어 부르겠다고 생각하고 그 노랫말을 공모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시인이나 작가에게 위촉하여 가사를 짓고 또 거기에 맞추어 성가를 작곡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같은 몇 건의 특수사례를 제외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가집은 그 대부분이 곡조나 가사를 외국 성가의 번안으로 만족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바탕 일꾼으로 성장해야 할 오늘날에 와서는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스스로 작곡하고 스스로 노랫말을 지은 성가를 갖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우리 평협은 이와 같은 성가 노랫말 공모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이 행사도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취지에 찬동하고 공모에 응해주신 43명의 응모자 모두에게 저는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를 빛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모한 작품들은 모두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는 소중한 노랫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열을 가려 등급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여섯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끝에 제일 큰 상이라고 할 대상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응모한 작품에 부족함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우리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눈높이를 높이에 두어, 좀 더 분발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심정은 이 노랫말 공모행사가 해를 거듭하여 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모에 뽑힌 5편의 작품은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부른다면 모두 훌륭한 성가로 제 모습을 갖출 것이라 믿습니다. 최우수작 '성가정'은 7·5조의 기본 가락에 4단 8생의 정제된 구조로 성가정의 본성을 사랑과 행복, 용서와 화해로 규정한 서술 기법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성가정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노랫말에 녹아 있습니다. 우수작 '축복의 미사'도 미사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노랫말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위로와 용기, 믿음과 소망, 기도와 감사는 미사를 꿰뚫고 흐르

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요, 은총의 날개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장려상에 뽑힌 세편의 작품들도 모두 상당한 수준을 보인 작품들입니다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 시라는 뜻에서 칭찬의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또한 입선에 들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 한 걸음에 천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사를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인 평신도 중심의 교회 활동과 신심 강화, 영성심화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수상자 다섯분의 입상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족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협조와 보살핌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또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 평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도 자축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슴 설레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립절 기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가득히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회 성가합창제 명동성당에서 열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평신도주일을 맞아 두 번째로 개최한 성가합창제가 11월 13일, 14일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주관 문화분과, 위원장 조남진 모니카).

서울대교구 내 15개 지구에서 각 한개 팀씩 15개 성가대와 한남동 국제성당 연합성가대가 이틀에 걸쳐 출연한 이번 합창제에서 한홍순 회장은 “이렇게 우리 교구의 각 지구를 대표하는 성가대와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우렁차게 세상에 외치고 싶어 평협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가합창제를 열게 됐다”고 말하고 “오늘 이 합창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복음을 온 겨레에게 전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축사에서 “본당의 성가대는 신앙과 성음악의 못자리”라고 전제하고, “아무조록 이 합창제가 매년 지속되고 날로 발전해서 성음악 발전의 계기가 되고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신자들이 목소리를 합쳐 함께 노래하고 경축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 곧 친교와 조화의 표현인 성가대가 태어난다”고 말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교황축복을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7지구의 하계동 알베르도 성가대를 비롯해서 3지구 역촌동 우니파스 성가대, 12지구 반포동 라우다떼 성가대, 1지구 한강 마르띠르 베리파스 성가대, 11지구 삼성동 산타마리아 성가단, 특별출연으로 한남동 국제성당 연합성가대, 15지구 목5동 성가정 성가대, 10지구 공동사목 오륜동·방이동, 오금동 글로리아 성가대, 6지구 연합성가대(창동, 도봉산)가 출연했고 14일에는 5지구 이문동 연합성가대와 14지구 당산동 라우다떼 성가대, 13지구 봉천동 아가페 성가대, 2지구 아현동 까리파스 성가대, 4지구 정릉4동 이냐시오와 임마누엘 연합성가대, 8지구 금호동 크레도 성가대, 9지구 천호동 세실리아 성가대가 출연했으며, 이들 모두 연합합창으로 이반 디아스 추기경이 작사하고 지아니 데이다가 곡을 붙인 ‘하늘의 별’과 가톨릭성가 39번 ‘하나되게 하소서’를 참석한 모든 이가 함께 아름답게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 사회사도직연구소 신앙실태조사 준비 마무리

서울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병선 요한)는 12월 27일 2006년도 마지막 전체회의를 명동 광개토 음식점에서 열고 그동안 8차례 검토해온 ‘평신도 신앙생활 실태조사 설문’안을 확정지었다. 이 연구소는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3월 중에 조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임원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안병철 도미니코, 지도신부 문희중 요한 세레자)

는 2006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강화도 늘푸른 펜션에서 2006년도 평협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2일에는 성지순례와 말씀의 전례를 시작으로 사무국 회의에서 2006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했으며, 2007년도 1월에 있을 상반기 본당총회장 연수의 일정과 준비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또한, 수원교구의 대리구제 전면 실시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회칙과 내규 검토 등으로 바쁜 일정을 마치고 친교의 시간을 가져 단합을 도모했다. 안병철 평협 회장은 인사를 통해 교구 평협이 대리구제 실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교구와 대리구의 인화관계와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목표에 따른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여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중 지도신부는 수원교구 지역 자체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성전 건립의 필요에 따른 어려움과 외적 발전에 따른 신자들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외적 복음화가 균형 있게 되어야 하는데, 내적 결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목방향이 내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영성강좌 등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수원교구의 대리구제 실시는 교회 대형화와 사제 친교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이기도 하므로 평신도가 대리구제 성공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성숙하기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에는 지도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올리고, 심신 단련과 영적일치를 위한 마나산 등반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임원연수



수원교구 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유영홍 울리아노, 지도신부 문희중)는 지난 해

11월 11일 수원교구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17개 단체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사도직단체 임원 연수를 가졌다. 시작기도와 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연수는 지도신부의 강의와 단체별 발표, 최덕기 바오로 교구장님의 총평으로 이어졌다.

평단협 문희중 지도신부는 '사목지침서에 의

한 단체의 정의와 부탁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교회법 상의 단체에 대한 각종 정의와 활동영역, 지양해야 할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활동지침을 내렸으며, 단체에서 인쇄물을 만들 때 주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사용 가능함을 당부했다. 각 단체별로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교구장은 총평을 통해 각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수원교구 대리구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매년 중점사업을 두도록 하고, 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장을 도모하라고 지시했으며, 단체 회원들이 성화하여 단체 활동을 통해 복음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과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의 성화와 복음화를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추계연수



원주교구에서는 2006년 11월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목당피정의 집에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도신부 박상용 아우구

스티노, 회장 윤봉옥 요셉) 추계 연수를 실시했다. 평협 임원과 각 단체장 21명이 참석한 추계 연수에서는 그리스도 수도회 원장인 김규환 요셉 신부가 '하느님 맛 드리기' 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각 단체별로 2007년도 사업계획 토의를 통해 모든 단체가 교구장 주교의 사목방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 여성연합회 제32차 정기총회

원주교구 여성연합회(지도신부 박상용 아우구스티노, 회장 송영순 글라라)는 제32차 정기총회를 11월24일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각 본당 성모회원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함께 내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특강으로 황찬연신부(평창 필립보 마을)가 '환경과 여성'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고,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는 여성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회원들은 여성연합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항상 교구의 만머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원주교구 여성연합회는 또 '생명을 지키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 교수인 서울대교구 이동익 신부와 이영자 수녀를 초청한 가운데 지난 11월6일 배론성지에서선 피정을 실

시했다. 이날 피정에는 원주교구 6개 지구 40개 본당 600여명의 성모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영자수녀는 '여성으로서의 가정'이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크리스천의 가정은 넓은 의미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익 신부는 '생명의 문화건설을 위하여'란 주제로 인간의 삶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도 생명과 반대되는 현상(전쟁, 핵, 테러, 안락사 등)이 난무해 우리사회의 생명존중의식이 점차 희박해진다면서 생명존중의 정신과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피정을 통해 여성연합회 회원들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폭넓은 가정을 이루고, 인간 생명 존중의식을 갖자고 다짐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3회 대구가톨릭예술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지도신부 김울석(마태오), 회장 이용기(요한비안네))에서 주최하고 평협 산하 단체인 국악예술단, 문인회, 미술인회, 사진가회, 여성합창단, 음악인협회, 전례꽃꽂이연구회에서 주관한 제3회 대구가톨릭예술제가 지난 10월 29일(주일)부터 11월 5일(주일)까지 개최돼 성황을 이뤘다.



단체별 발표 내용으로는 미술가회에서 미술전 (10월 29일 - 11월 5일, 인터블고호텔 뿌라도 갤러리), 문인회와 사진가회에서 시화전과 사진전(11월 1일 - 5일, 성모당), 전례꽃꽂이연구회에서 전례꽃꽂이전(11월 3일 - 5일, 교육원 대강당), 국악예술단에서 국악공연과 여성합창단·음악인협회에서 음악회(11월 4일 오후 4시, 신학대학 강당)를 가졌다.

※ 대구가톨릭예술제는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를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나누기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실시하여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나눔과 2차 헌금 실시

11월 19일 연중 제33주일 제39회 평신도주일을 맞아 교구장의 사목지침 “노인 복음화의 해”에 맞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를 준비하고 평신도주일 2차 헌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 교구평협 상임위원 송년 모임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총대리 최영수(요한) 대주교와 김울석(마태오) 지도신부를 모시고 12월 20일(수) 저녁 7시, 파크호텔에서 상임위원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최영수(요한) 대주교는 평신도의 활동상을 되돌

아보며 잘한 점과 앞으로 개선할 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고, 평신도들은 2007년 교구장 사목지침 ‘노인 복음화의 해’을 잘 준수 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신도를 위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영성강좌

2006년 한 해 동안 광주대교구는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를 모시고 매월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성강좌를 실시했다.

- 9월 9일(토) 평신도와 복음 삼덕(가난, 정결, 순명) / 300여명 참석

- 10월 14일(토) 노동의 영성(직업과 소명) / 200여명 참석

- 11월 11일(토) 가정생활의 영성(혼인과 가정) / 200여명 참석

● 순교자 현양미사 봉헌

광주대교구 순교자현양회(회장 정기수, 지도 황양주 신부)는 교구내의 순교자를 확인하고 순교지의 정확한 지적과 건축 등의 고증을 거쳐 성지를 개발하고자 지난 2005년 9월 ‘순교자 현양회’



를 출범 시킨 이후 꾸준히

회원을 늘려오고 있다. 지난 9월 9일에는 순교자성월을 맞아 연례행사의 하나로 순교자현양 회원을 위한 미사를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봉헌해 300여명이 함께 했다.

● 지구평협 활동

북부지구 평협 체육대회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려

광주대교구 북부지구 내 15개 본당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5일 체육 한마당을 가졌다. 이날은 11월 5일에 있을 교구장기 지구별 대항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족구, 배구, 2인 3각 계주 등에서 열전을 펼쳤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관 개관식

“제주도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표착하신 것은 하늘의 섭리이며, 이 섭리를 잊지 않기 위해 용수리를 성지로 선포한다.”

1999년 9월 19일 오후 2시 한경면 용수리를 성지로 선포하면서 당시 교구장이던 김창렬 바오로 주교님이 강론 중에 언급한 대목이다. 그

로부터 7년이 지난 2006년 11월 1일 오후 3시 제주교구는 용수성지에서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개관식”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대건 신부 후손회 김용태(마지아) 회장 등 내빈과 성직자, 수도자, 일반신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 주례로 거행했다.

제1부 말씀전례, 제2부 개관식, 제3부 축하식 순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 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는 강론을 통해 “1945년 9월 28일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성체예식이 거행된 날로 기억하자”고 첫 미사 봉헌을 강조한 뒤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시련과 고통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8월 31일 상해를 출발, 조선으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28일간 표류 끝에 제주 용수리 해안에 표착한 것을 기념하고 조선 땅인 제주에서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첫

미사의 성체 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은 대지

4,300평, 건평 168평의 2층 건물로써 2004년 10월 24일 착공하여 개관하게 됐다.

기념관은 1층에 성 김대



건 신부 유해공경실, 관리실, 2층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김대건 신부관', '제주교회사관', '제주교구 선종사제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착하는 모습과 첫 미사 봉헌 장면을 재현하였다. 또한 1999년에 고증 복원한 라파엘호는 차귀도가 바다를 보이는 기념관 잔디마당에 전시했다.

전국평업 회원 단계 소식

가톨릭경제인회

● 2006년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

한국가톨릭경제인회(회장 박광순, 지도 조근호 신부)는 12월 17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2006년 송년 감사미사와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가톨릭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복음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한 신자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최철수(스테파노, 71)씨가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을 수상했다. 최씨는 30여년간 가톨릭 성지개발과 수도원, 각종 단체에 물적, 심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으며, 대전 성심당 제과 대표 임영진(요셉, 52)씨가 장려상을, 대건기업 회장 김광석(루카, 84)씨가 특별공로상을, (주)마이벤처파트너스 회장 김창달(요한, 72)씨와 (주)산암텍 대표이사 오정선(베드로, 68)씨가 공로상

을, 광주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동림)가 모범 교구상을, 서울 청소년국 용문청소년수련장 관리실장 함택서(베드로, 65)씨가 모범 근로자상을 받았다.

레지오 마리에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 세나투스 간부 선출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윤병길 레자 요한)에서는 제 334차 월례회의에서 3년 임기가 끝난 4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11월 26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실시됐다. 선거결과 단장에 팽종섭 단장이 재선됐고 부단장에는 전 서기 한관섭(미카엘)형제, 서기에는 송파 '천주의 성모' 꼬미씨움 단장 정지오(세레자요한) 형제가, 회계에는 한휘운(아네스) 자매가 재선출되었다. 새로 선출된 간부들은 "단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지아와 꼬미씨움을 세나투스와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출해주신 평의원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계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간부들과 평의원들은 축하와 격려로 한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해에는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세나투스가 될 것을 다짐했다.

● 교육 봉사자 연수 실시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에서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교육 봉사자 연수회를 사직동 전교 가르멜 영성의 집에서 열었다. 세나투스 교육 봉사자 20명이 참석한 연수회에서는 관리와 운영 지침서 개정 내용 검토와 세나투스 운영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길(세례자요한) 지도신부는 파견미사에서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단원교육을 담당할 교육 봉사자 여러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봉사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단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교구장 사목교서 교육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에서는 2006년 12월 12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꼬미씨움 간부 46명이 참석해 2007년도 서울대교구장 사목교서 교육을 실시했다. 윤병길 지도신부는 2007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에서 2007년 사목교서는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의 주제와 성인교육, 가정사목, 노인사목, 선교, 청소년·청소년사목, 사회사목, 생명존중을 중점으로 강의했다.

참석한 꼬미씨움 간부들은 교구 사목교서 내용과 세나투스 목표를 중점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레지오 마리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레지오 도입 50주년 기념 제주도성지순례

-현 대주교 묘소 참배 등 은혜로운 2박 3일간의 순례 가져 -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단장 박기탁 사도요한, 지도신부 최홍길 레오)는 지난 11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레지오를 도입한 현 하롤드 헨리(1909-1976) 대주교의 묘소 참배를 비롯한 제주도 일원의 성지를 순례하며 선배 레지오 단원의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고 아울러 선조 신앙인들의 투철한 신앙에 대한 열정과 순교영성을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06년은 현 하롤드 대주교 30주기가 되는 해로 우리나라 레지오 마리에의 은인과의 같은 그분의 묘소를 참배하며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단원들의 결의를 밝힌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며, 김대건 신부 순교 60주년의 해를 맞아 성인이 귀국길에 표착했던 용수리 표착지에 새로 단장한 성 김대건 신부 표착기념관을 순례하면서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역시 각별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2006년 평의회 총회 개최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는 2006년 11월

26일(일) 오전 11시부터 교구청 내 교육원 대강당에서 세나투스 산하 Co. 및 Cu. 단장 및 직속 Pr. 단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6년 평의회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서정욱(아오스당) 전 레지오 단장의 슬라이드를 통한 대구 레지오 발전사 강의가 있었으며, 이해도(안젤로) Se. 부단장이 2006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박기탁(사도 요한) 단장이 2007년도 활동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단체촬영 후에 최홍길 신부의 '대구교구와 레지오 마리아'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강의후 오후 4시부터 장엄한 파견미사가 봉헌됐으며 미사 후에 교육원 대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정겨운 아가페의 시간을 가진 참석자들은 오후 7시 30분경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가했다.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대구 세나투스 가 50주년을 더욱 뜻 깊게 보내고자 결의를 다



지는 장이 된 총회였다.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위령미사 봉헌

대구 세나투스는 11월 27일(월)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맞이 제 23회 영성강좌 전에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

헌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이 미사는 최홍길 지도신부 주례, 오세민 암브로시오 삼덕 보좌신부 공동집전으로 1천여 단원들이 참례한 가운데 봉헌됐다. 미사 중에 Se. 간부들과 Se. 소속 모든 평의회(Co. Cu.) 단장들이 평의회를 대표하여 세상을 떠난 소속 단원들을 위해 분향했다.

● 도입 50주년 경축행사 준비위원회 발대



식미사 봉헌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에서는 지난 12월 17일(일) 오후 2시부터 삼덕성당에서 대구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경축행사 준비위원회 발대식미사를 봉헌하고 2007년 50주년을 맞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세나투스 5간부, 꼬미시움 간부, 꾸리아 간부, 프레스디움 단장 등 세나투스 산하의 간부 1,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대구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경축행사의 성공을 위해 기도와 희생과 봉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첫째, 성모님의 순명정신으로 무장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경축행사 준비에 진력한다. 둘째, 단원들에게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의 의의와 정신을 적극

교육하고 홍보한다. 셋째, 우리는 50주년 경축 행사 및 신앙대회를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넷째, 우리는 50주년을 맞아 창설자의 정신으로 돌아가 기도와 희생과 봉사를 통해 레지오 마리아 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가오는 2011년 교구설립 100주년 준비에도 솔선하여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동 정

● 한홍순 회장, '간추린 사회교리'에 관한 아시아회의 참석

한홍순(토마스) 한국평협 회장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간추린 사회교리'에 관한 아시아대륙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한홍순 회장은 또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대학과 사회교리'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22일 같은 달 귀국했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와 가톨릭 교육성이 공동 주최한 이 회의에서 한 회장은 '아시아 지역 대학과 사회교리'를 발표했다.

● 유연채 평협 홍보분과위원장 서강언론인상 수상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홍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연채(스테파노) KBS 시사보도팀장은 서강대언론인회(회장 황희만 MBC 논설위원)

가 마련한 2006년 서강언론인상 수상자로 강일중 연합뉴스 편집위원실 고문과 함께 선정돼 12월 5일 저녁 서강대 마태오관 9층 리셉션홀에서 열린 '서강언론동문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 상을 받았다.

한편 유연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0일 부친상을 당했다. 유위원장의 선친(유희갑 75)은 이날 충남 홍성에서 사고로 선종했으며, 서울평협 홍보분과위원 홍기낭 카타리나씨의 시부이기도 하다.

● 이정희 국제협력분과위원장 2008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에 뽑혀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이며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정희(베드로)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치학회가 지난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2008년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제16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 오덕주 부회장,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홍보사업 평가회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부회장인 오덕주(테레사)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회장은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2006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정착 교육·홍보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 민병덕 지도신부와 최흥준 사무총장
통합사목연구소 연구발표회 토론자로 참석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평협과 서울대교구 평협 민병덕 지도신부와 최흥준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5일 명동성당 별관에서 열린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단체와 소공동체 발전 방향' 연구 발표회에



행복하여라, 노인의 친구들

행복하여라, 내 걸음 떨리고, 손 저림을 이해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내 귀를 기울여야,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내 눈이 침침하고,
 내 정신이 더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내가 커피를 엮질렀을 때, 못 본체 해주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하던 일을 멈추고 유쾌하게 웃으며,
 잠시 나와 말동무가 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그 얘기 오늘 두 번 하셨어요"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난날 추억을 되살아나게 해주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내가 사랑 받고 존중 받으며,
 외톨이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부쳐,
 찢찢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에스터 매리 워커 지음

우리성가 작곡공모

- ▣ 응모기간 : 2006년 12월 ~ 2007년 4월 말
- ▣ 당선작발표 : 2007년 5월 중 발표
- ▣ 작품 :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선정된 5편 중 자유로이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으로 작곡 할 것.
* 제1회 우리성가 노랫말 수상작은 평협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 시상 :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백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백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 ▣ 보낼 곳 : 우)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국
*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MR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Homepage: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 02-777-2013, 757-7851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